

세계도시동향

헤드라인뉴스	1	쓰레기 소각장 10곳 2020년 말까지 확충	상하이
환경·안전	2	‘연구부터 사업화까지’ 차세대 에너지시스템 창조전략 마련	교토
	4	‘유기농 먹거리 이용한 건강한 식생활’ 소그룹 활동 지원	리옹
도시계획·주택	6	이자르강 도심부 유역 ‘환경 지키면서 개발’ 도모	원헨
	8	버밍엄을 초고속열차 네트워크 허브로 육성	버밍엄
	10	‘열린 공간 확대’ 사유지 사서 시민공원으로 조성	멜버른
	11	기후변화에 대응해 사회적 주택 개보수 사업 진행	파리
정보·기타	12	2020년 올림픽 성공 개최 등 도시외교 기본전략 수립	도쿄



쓰레기 소각장 10곳 2020년 말까지 확충

급속도시화로 쓰레기 발생량 급증...하루 2만톤 처리 가능

중국 상하이시 / 환경·안전

- 중국 상하이시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쓰레기 배출량의 급증에 따라 2020년 말까지 10개의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·가동할 계획임을 발표함. 쓰레기 소각장 10곳이 확충 되면 하루 2만 톤의 쓰레기 소각이 가능함.

- 배경

- 상하이시의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 2만 2천 톤에 달함.
- 시의 쓰레기 처리는 소각이 40%, 매립이 60%임.
- 쓰레기 매립을 위한 토지 부족



대기오염 저감장치를 설치한 친환경 쓰레기 소각장

- 환경전문가들의 의견

- 소각시설에 대기오염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
- 친환경 소각시설을 설치할 때 매연이나 가스배출 기준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
-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인터넷 예약을 통해 쓰레기 소각장을 견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

- 앞으로 쓰레기 소각은 상하이시의 주요 쓰레기 처리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됨.

<http://www.h2o-china.com/news/229582.html>

<http://huanbao.bjx.com.cn/news/20150824/655911.shtml>

환경·안전

‘연구부터 사업화까지’ 차세대 에너지시스템 창조전략 마련

일본 교토市 / 환경·안전

- 일본 교토市는 지역대학의 최첨단 연구시스템과 기업의 특허기술 등을 기반으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‘교토 차세대 에너지시스템 창조 전략(京都次世代 エネルギー システム創造戦略)’을 수립
- 전략의 목적
 - 연구단계부터 사업화 추진까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혁신 창출
 - 지역의 산학공 제휴로 글로벌 에너지·환경 문제에 이바지
- 전략의 주요 내용
 1. 연구부터 사업화까지의 연결 플랫폼 구축
 - 연구능력을 가진 대학과 특허기술을 가진 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적 이점을 살려 기초연구에서 사업화까지 연결 플랫폼 구축
 2. 에너지 관련 연구
 - 에너지의 ‘축적’, ‘창조’, ‘사용’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연구개발을 진행
 -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새로운 연료를 생산하고 전력을 저장하는 에너지 축적 시스템 개발 관련 연구
 - 연료전지의 핵심 소재 개발 관련 연구
 - 반도체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관련 연구
 3. 연구의 실용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
 -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원활한 연구의 진행과 사업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연계 코디네이터 7명을 배치하고 ‘지식 네트워크’를 구축
 - 코디네이터는 대학과 기업의 연구주제를 조정하고 연구성고가 실용화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기획 등을 추진
 -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구현

<http://www.resik.jp/activities>

<http://kyoto-kogomi.net/wp-content/uploads/2015/04/hangenpuran.pdf>

https://www.resik.jp/newstopics/news/daiikkai_seika_happyokai.html

‘유기농 먹거리 이용한 건강한 식생활’ 소그룹 활동 지원

프랑스 리옹市 / 환경·안전

- 프랑스 리옹市는 론알프州와 공동으로 여러 가구가 함께 지역의 유기농 먹거리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인 ‘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가족들(Familles à Alimentation Positive)’의 활동을 지원
- 프로그램의 목적
 -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장려
 - 지역의 유기농 먹거리 소비를 통한 순환경제 구축
 - 알뜰한 식생활 아이디어 제공
 - 누구나 지역의 유기농 먹거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



‘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가족들’ 프로그램 포스터

- 프로그램 참여
 - 프로그램 참여는 1~2인 가구부터 노인 가구까지 누구나 가능
 - 참여하기 위해서는 팀(8~12가구) 단위로 구성되어야 함.
 - 프로그램 참여는 프로그램 진행 사이트를 통해 팀 단위로 신청이 가능
 - 신청기간은 9월~10월이며 프로그램 진행은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임.

- 프로그램 운영

- 각 팀은 정해진 예산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먹거리를 소비하면서 팀별 활동 기록을 취합
- 각 팀의 팀장은 코라비오(Corabio, 론알프 지역 농민단체)에서 교육을 받은 후 그 내용을 소속 팀원들과 공유하며 실행을 촉진
- 또한 본인이 속한 모임에서 나온 좋은 실천방안들을 코라비오를 통해 다른 팀과 공유
- 각 가구는 프로그램 진행기간에 총 3회에 걸쳐 식료품 구입명세표를 정리해서 제출
- 프로그램 진행기간에 각 팀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영양사와 면담, 유기농 농장 방문, 유기농 농업 관련 퀴즈대회 등 리옹시에서 준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수행



네트워크 코라비오

- 리옹시의 지원

- 시는 농장 무료 방문, 영양사 상담, 지역 유기농 먹거리 정보 제공, 요리교실, 텃밭 제공, 유기농 먹거리를 싸게 구입하는 방법, 유통경로 등을 지원

<http://famillesalimentationpositive.fr/index.php?pages/y-y-y-y>

도시계획·주택

이자르강 도심부 유역 ‘환경 지키면서 개발’ 도모

독일 뮌헨市 / 도시계획·주택

- 독일 뮌헨市 의회는 뮌헨 도심부를 지나는 이사르(Isar)강 유역의 환경 보존을 기본 원칙으로 유지하면서도 강의 연안에 신규 관광 및 시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‘이자르강 유역 지속개발 기본계획’을 의결
 - 이사르강은 도나우(Donau)강의 지류로 뮌헨 시내를 관통
 - 이사르강과 강 유역에는 섬을 비롯하여 선착장, 산책로, 녹지 등이 존재
 -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
 - 이사르강 연안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물의 보존, 강 인근 부지 확장, 강 연안의 미적 환경 개선, 보행자 및 자전거 통로 확보 등을 통한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조성
- 1) 강변에 휴식시설 확충
 - 강 주변에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식공간 확충
 - 강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 조성
 - 뮌헨시 고유의 특색을 살린 계단식 벤치 조성
 -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 및 휴식공간 조성
 - 2) 강 연안에 발코니 형식의 전망대 설치
 - 3) 강 연안의 역사적·예술적 의미가 있는 교회의 조망 및 접근의 용이성 확보
 - 4) 이사르강의 섬 안에 있는 국립박물관 주변의 공간 확충
 - 섬을 중심으로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자의 횡단이 가능한 남북 연결통로 조성
 - 5) 강변 녹지에 휴식공간, 자연 친화적인 공원 및 놀이터 조성

6) 강 위를 지나가는 공간 조성

- 이자르강에 있는 섬과 섬 사이를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교량 산책로 건설
- 산책로에는 다국적 문화를 포함한 휴식공간 조성

7)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

- 이자르강에 있는 섬 안에 녹지 조성
- 섬으로의 접근로 개선

8) 자연공원 조성

- 이자르강의 두 지류가 합류하는 지역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한 자연공원 조성

9) 강 연안에 새로운 공간의 창출

- 강 연안의 조형적 가치 개선
- 유휴공간을 여가시설로 재편하면서 통행 접근성 개선

<http://www.muenchen.de/rathaus/Stadtverwaltung/Referat-fuer-Stadtplanung-und-Bauordnung/Meldungen/Isar.html>

http://www.muenchen.de/rathaus/dms/Home/Stadtverwaltung/Referat-fuer-Stadtplanung-und-Bauordnung/Pressemitteilungen/20151014_Rahmenplan_Isar.pdf

<http://www.ris-muenchen.de/RII/RII/DOK/SITZUNGSVORLAGE/3232307.pdf>

버밍엄을 초고속열차 네트워크 허브로 육성

영국 버밍엄市 / 도시계획·주택

- 영국 버밍엄市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커즌스트리트역(Curzon Street Station)을 고속열차의 전용 역사로 재개발하는 것을 핵심으로 주변지역을 함께 개발하는 ‘커즌 HS2 기본계획(Curzon HS2 Master Plan)’을 2015년 이후 시행할 예정
- － 기본계획의 목표
 - 시의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동쪽 지역의 재생
 - 버밍엄시가 영국 초고속열차 네트워크의 핵심지역으로 성장
 -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삶의 질 향상
- － 기본계획의 섹터 구성 및 향후 전망
 - 버밍엄시의 동쪽 지역과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지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6개의 섹터로 구분하여 개발



‘커즌 HS2 기본계획’의 전체 지역과 6개 섹터

- 도착(Arrival) 섹터 : 버밍엄 방문객들의 출입문 역할을 할 커즌고속철도역을 다양한 지역과 연계되는 랜드마크적인 장소로 조성
- 상가(Retail) 섹터 : 현재 버밍엄시의 상업중심지인 서쪽 지역과 커즌고속철도역을 연계하는 상가지역으로 조성

- 방문(Visit) 섹터 : 이미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향후 커즌 역사 프로젝트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조성
- 창조(Creative) 섹터 : 디지털 기술, 디자인, TV 제작, 예술 활동 등 창조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가 후원 예정인 구역
- 비즈니스(Business) 섹터 : 금융 및 대기업들이 위치한 곳으로 고속철도의 빠른 이동성을 발판으로 향후 버밍엄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조성
- 학습 및 연구(Learning and Research) 섹터 : 버밍엄시립대학교와 버밍엄 과학박물관이 위치한 곳으로 다양한 연구, 기술 관련 비즈니스, 교육 관련 사업들이 이곳에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

– 예상되는 기대효과

- 일자리 창출 : 고속철도역사 운영 관련 일자리 200여 개, 건설 관련 1,000여 개 등 총 36,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
- 경제효과 : 늘어나는 일자리로 버밍엄시는 310억 파운드(약 54조 원)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

<http://www.birmingham.gov.uk/birminghamcurzonhs2>

<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consultations/equality-impact-assessment-update-cfa1-euston-station-and-approach>

<http://www.birmingham.gov.uk/cs/Satellite?c=Page&childpagename=Planning-and-Regeneration%2FPageLayout&cid=1223377436160&pagename=BCC%2FCommon%2FWrapper%2FInlineWrapper>

‘열린 공간 확대’ 사유지 사서 시민공원으로 조성

호주 멜버른市 / 도시계획·주택

- 호주 멜버른市는 2012년 수립한 ‘열린 공간 전략(Melbourne Open Space Strategy)’ 중 하나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821m² 규모의 시민공원을 조성할 예정
- 배경
 - 멜버른市 도심에 단독주택 대신 아파트 건설이 증가함에 따라 도심 주민들의 열린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음.
 - 시는 ‘열린 공간 전략’에 따라 2027년까지 24헥타르의 열린 공간을 확보할 예정
 - 시는 ‘열린 공간 전략’ 수립 시 인구성장과 토지매입 기회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열린 공간의 확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
- 사유지 매입비용
 - 사유지 매입비용은 ‘열린 공간 펀드(Open Space Fund)’ 조성을 통해 마련
 - 이 펀드의 기금은 주민세,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교부금, 시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‘열린 공간 기여금 제도(Open Space Contribution Framework)’로 조성됨.
 - ‘열린 공간 기여금 제도’는 재개발 시에 개발업자들에게 부과되는 개발분담금으로 재개발지역에 따라 5~8%의 요율을 적용
- 기타사항
 - 2011년 조성 당시 불과 370만 호주달러(약 31억 원)에 불과했던 펀드가 2015년 현재 1,860만 호주달러(약 150억 원)로 증가
 - 시는 현행 녹지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향후 8개의 지역에 추가적으로 시민 공원을 조성할 예정

<https://www.melbourne.vic.gov.au/AboutCouncil/MediaReleases/Pages/Firstprivatelandpurchasedinplanttoexpandopenspace.aspx>

https://www.melbourne.vic.gov.au/ParksandActivities/Parks/Documents/open_space_strategy.pdf

기후변화에 대응해 사회적 주택 개보수 사업 진행

프랑스 파리市 / 도시계획·주택

- 프랑스 파리市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중 하나로 사회적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리노베이션 공사를 시행
 - 리노베이션 공사의 배경
 - 파리시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은 프랑스 온실가스 배출량의 40% 이상을 차지
 - 시는 2012년부터 시행 중인 ‘기후계획(Le Plan Climat)’에 의해 파리시에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건물의 개보수에 초점을 맞춤
 - 시는 매년 4,500호 이상의 사회적 주택의 단열개선 공사를 시행
 - 근대 건축유산의 보전
 - 최근 공사가 행해진 파리5區의 사회적 주택은 파리 북서부의 화려한 부유층 건물들과 달리 건물 전체가 붉은 벽돌로 지어진 1930년대 건축양식으로 되어 있으며 근대 파리의 건축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임.
 - 이 사회적 주택의 복원사업은 프랑스 중앙정부와 일드프랑스州가 2013년에 시작한 “지속가능한 복원사업” 대상으로 선정되어 공사비를 지원받음.
 - 향후 계획
 - 파리시는 2030년까지 시의 전체 주택 중 사회적 주택의 비율을 30%까지 끌어올릴 예정
 - 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사회적 주택의 단열개선 공사와 함께 입주민들의 쾌적한 거주를 위해 보수공사도 꾸준히 진행할 예정
 - 2016년부터 사회적 주택 개선사업에 대해 무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공사 진행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려줄 예정

<http://www.paris.fr/actualites/logement-social-et-plan-climat-font-bon-menage-2973>

정보·기타

2020년 올림픽 성공 개최 등 도시외교 기본전략 수립

일본 도쿄都 / 정보·기타

- 일본 도쿄都는 도쿄의 국제적 위상 제고, 국내외 도시들과의 우호관계 구축 및 지속적인 윈윈(win-win) 관계 유지를 위한 ‘도쿄도 도시외교 기본전략(東京都都市外交基本戦略)’을 수립
- 전략의 3대 목표
 - 2020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
 - 대도시의 공통문제 해결
 - 글로벌 도시 도쿄 구현
- 2020년 도쿄올림픽의 성공 개최
- 자매·우호 도시 및 주요 도시들과의 교류 추진
 - 2020년 도쿄올림픽이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주요 도시들과 교류 추진
 - 스포츠·문화 분야의 교류 활성화
 - 각 도시의 시찰·연수 등을 활성화
- 문화·예술 활동의 촉진
 - 젊은 예술가나 청소년 교류 등을 추진
 - 미술관·박물관 등 문화시설 네트워크 구축
- 대도시의 공통 문제 해결
- 세계 주요 도시와의 시책 정보 공유
 - 세계 주요 도시의 최신기술, 노하우, 선진사례, 경험 등의 공유를 통한 윈윈 협력체제 강화

- 여러 도시 간의 실무협력 촉진
 - 위기관리, 전염병 대책 등의 분야에서 각 도시가 가진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위기관리 분야의 인재 육성
 - 환경문제에 대한 여러 도시 간 정보 교환과 기술 지원
- 글로벌 도시 도쿄 구현
- 외국인이 쾌적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
 - 외국인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도쿄에 체류·거주할 수 있도록 표지판 등의 다언어화, 와이파이(Wi-Fi) 환경구축 등
 - 외국인, 고령자, 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의 편리성 향상
- 비즈니스하기 좋은 도시 구현
 - 국가전략특구제도 활용과 국제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
 - 국제학교와 외국인 대상 병원 등 외국인 생활지원 시설 조성
- 국제금융센터 구상
 - 국제금융의 중심지로서 도쿄의 지위 부활
 - 국제금융회의 유치 및 개최
- ‘도시외교 인력육성기금’의 조성 및 활용
 - 기금 조성 : 2008년도부터 아시아 출신 대학생에게 지원하던 ‘아시아 인재육성 기금’을 2015년부터 ‘도시외교 인력육성기금’으로 개정·운영
 - 기금 활용 : 도립 수도대학도쿄(首都大学東京)의 외국유학생 장학금, 자매도시 등과 합의한 국제인재육성 프로그램, 도시외교의 안정적·지속적 추진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

<http://www.seisakukikaku.metro.tokyo.jp/gaimuka/strategy/strategy.htm>

<http://www.metro.tokyo.jp/INET/KEIKAKU/2014/12/70ocp500.htm>

<http://www.metro.tokyo.jp/INET/KEIKAKU/2014/12/DATA/70ocp500.pdf>

<http://www.metro.tokyo.jp/INET/KEIKAKU/2014/12/DATA/70ocp501.pdf>

<http://www.edaily.co.kr/news/NewsRead.edy?SCD=JG31&newsid=03421046606157472&DCD=A00703&OutLnkChk=Y>